

발행일/
1994년 2월 15일
발행인/한명숙
발행처/한국여성민우회
100-39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전화/269-5763~5
팩스/269-5766

함께기로여성

1994

2

통권78호



목사님! 지금 어디를 계신가요? 삶의 끝, 죽음의 언덕위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북쪽이 가진 자주성과 남쪽의 민주성을 결합하면 통일조국 빛진나라, 멋들어진 민중의 나라가 될거야' 하시더니
모색처럼 통일의 그날 저 앞에 있는데 못보고 가셨군요.

아니 그곳에서 보시려고 높이 올라 터잡고 계시지요?

..... 목사님, 우리 문익환 목사님

(김영환님의 「우리가 늦봄이 될게요」에서)

- | | |
|--|--|
| 2 더불어 한걸음씩
전체가 하나되어 어우러지며
웅장한 감격을 안겨주는 교향곡처럼... | 12~13 생활의 지혜/컴퓨터 배움마당 5
워드프로세서 초보운전 |
| 3 동네는 작은 국가/지역자치와 여성 2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결단이 필요하다 | 14 회원이야기
우리 단비들에게 '실컷' 기대해도 좋은 94년이에요 |
| 4~7 특별보고/한국여성민우회 제7차 정기총회
바람타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로 서자 | 15 역사기행/ '동학농민전쟁'의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작고 예쁜 '내소사'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니... |
| 8~9 문화마당/토도랑(土陶廊)을 찾아
"도예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도자기만의 외출 | 16~17 지역협의회 소식
하얀 눈빛으로, 겨울과 새해 이야기... |
| 10~11 추모의 글/故 문익환목사님 거례장에 부쳐
우리 사랑 문익환 목사님
우리가 늦봄이 될게요 | 18~19 생활협동사업부 소식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 |
| | 20 알림마당 |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전체가 하나되어 어우러지며 웅장한 감격을 안겨주는 교향곡처럼...



이 경 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올해는 UN이 정한 '가족의 해'이고,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고민과
년 1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
그리고 각 구예산이 잘 쓰여져
우리들의 삶을 윤택히 하고
민주적인 사회가 되도록
서로의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우회에서의 활동 모두가
각각이 살아 움직이면서도
통합성을 키워, 전체가 하나되어
어우러지며 웅장한 감격을 안겨주는
교향곡의 선율처럼
올 한해를 멋있게 꾸어봅시다.

이번 제 7차 총회를 치루면서 우리 회원들 모두 세월이 많이 흘러갔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우회의 기틀을 닦는데 대내외적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신 한명숙 회장님의 임기를 마감하기 전 우리들의 마음은 두갈래였습니다. 회장님의 수침에 빼곡이 차있는 일정표를 보면서 엄청난 몸체를 계속 감당해주셔야 된다는 바램과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개인적 여유를 드려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망설임에 '우리가 정한 법(정관)은 지켜야 된다'는 회장님의 강력한 폐기와 한편으론 회장님 개인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새 임원진을 구성하게 되었고 저도 그중 한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7년여 세월만큼이나 민우가족들의 수도 늘어나고 셋방살이 설움도 씻게 되었으며 생협도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협활동을 통해 부업에서 세게가 보이는 해안을 조금이나마 갖게 되었고 지역여성대중조직의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직여성운동' 하면 '민우회'를 연상할 정도로 그 폭과 깊이 역시 나날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로 발전하기 위해 고비고비 넘어야 할 산들은 우리들 눈앞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구되어지고 있는 '국제화, 전문화, 대중화(지역화)'에 발맞추어 각 부, 위원회가 살아 움직이면서도 한 조직내에서 통합성을 가져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어우러지는 교향곡을 들었을 때의 웅장함, 기분좋음을 맛보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UN이 정한 '가족의 해'입니다.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어릴적 화롯가에서 군밤을 까주던 어머니의 파스함이 느껴집니다. 한쪽은 군밤을 까주지만 먹는 것이라곤 부스러기만 먹는데 반해 다른 한쪽은 먹기 좋게 까진 밤만 먹는 관계가 이제와 생각하면 냉기가 느껴집니다. ~아내, ~엄마로만 만족하면서 술단지 뚜껑을 열며 달으며 한숨을 토해내는 일방적인 희생은 결코 단란한 가정의 조건이 될 수 없겠지요. 마침 상반기에 각 지역마다 여성학교육이 실시될 예정인데 평등한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삶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지역에서도 여성운동의 싹이 트여질 것입니다.

올해는 또한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유권자의 절반을 넘는 여성가운데 1%만이 정치적으로 진출한 상태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주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사업으로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채택하였고 우리도 지방자치 제2기를 맞이하여 적극 나서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타단체보다 지역사업을 먼저 펼친 우리로서, 큰 부담이지만 우리 역량과 지역의 특수사정에 따라 준비하고 때에 따라 우리 후보도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맛있는 감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연구하고 실제 파봄으로써 전체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감을 팔려고 하는 여성대리인들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년 1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 몇백억원이 넘는 각 구 예산이 잘 쓰여져 개인과 가족의 삶이 윤택해지고 민주적인 사회가 되도록 작은 정성이나마 우리들의 힘을 모아봅시다. 우리의 대리인은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힘을 합칠 때 능력을 발휘할 여성입니다. 우리 모두의 눈, 귀, 입을 지역사회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뜨거운 여성이기도 합니다.

'95년 우리 민우회 회원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당당해질 수 있도록 그 밑거름 작업을 열심히 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 선 옥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많은 여성단체와 여성정책 연구기관들이 지방정치에의 여성참여를 주요 주제로 다루며 여성 정치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여성정치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으며, 또 한편으로는 할당제 등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며 다시 시작되는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초의원선거에서 10,120명의 전체 입후보자중 여성이 123명(1.2%), 광역의원선거에서 2,877명의 전체 입후보자중 여성이 63명(2.2%)이었고, 이들 입후보자중 기초에서 40명, 광역에서 8명이 당선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여성참여율 0.9%를 기록했다.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민주사회에서 그 지역사회의 주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정치적 대표성에서 배제되어도 되는가?

더구나 한국의 경제발전수준과 전체취업인구의 40%를 넘는 여성의 경제참여,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비하면 그 정치적 지위는 너무나 불균등한 수준이다. 더우기 국가정치와 달리 지방정치에의 여성 참여율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치보다 훨씬 높은 것이 보통이다.

헌법상의 참정권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한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렇게 부진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우리의 사회, 문화적 편견이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보아왔으며, 이에 근거한 정치제도가 여성들에게 정치에의 관심과 정치적 훈련의 기회를 적게 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은 비정치적이라든가 정치적 능력이 없다든가 하는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남성들의 편견, 그리고 여성 스스로의 편견은 세대를 이어오면서 고정된 전통적인 교육과 사회화과정의 소산으로 이것이 바로 여성의 정치활동을 어렵게 하는 성 불평등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 정치참여에 대하여 소극적이어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보았듯이 지방의회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또한 다행히 입후보의 의지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도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공천권자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당선가능성의 불충분으로 당의 공천을 받기가 어려우며, 어렵게 공천과정을 통과한 경우에도 여성, 남성 유권자의 의식이 아직도 남성후보를 선호하므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이러한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훈련과 참여의 기회가 적었던 여성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이나 능력만으로 선거전에서 남성들과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지난 1991년 선거에서는 얻어내지 못했지만 내년 선거에서는 여성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의 공천할당제, 비례대표제 채택시에 비례대표 할당제 등의 제도적 보장을 보다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한 사회집단이 불평등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불평등한 위치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평등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사상에 근거한다. 또한 이 요구는 앞에 말한 장애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이들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1991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여, 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치관계법안 개정과정을 보면, 각 당은 자신들의 대권에 관심이 있지 여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성표를 의식해서 모든 당이 여성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는 하지만, 내년 지방의회선거와 관련하여 구체적 지원방안은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은 여성들 스스로가 정취해야 한다. 헌법상의 양성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여성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성 차별은 구조적으로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헌법이 선언한 양성평등정신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하여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구성원인 개개인 남성과 개개인 여성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녀평등의 사회구조와 남성의 삶과 여성의 삶이 변화하려면 개인의 의식변화와 이의 실천이 필요하다.

어떠한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형성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주요기능이다. 따라서 정치는 비진실적인 것도,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며, 단지 사회형성의 제도적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우리 여성들 스스로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내년 2월과 5월에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상반기중에 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을 예정이다. 내년 선거는 지난 1991년보다는 여러가지로 여성들에게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우선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민주적인 공명선거제도를 갖고자 정치개혁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리고 비록 소수였지만 지난 3년간 0.9%의 여성의 원들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치는 여성이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여성단체들이 지난 1991년 선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선거에서는 보다 많은 여성을 지방의회에 보내기 위하여 강력한 연대 지원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12개월 내지 15개월정도 남은 지방의원선거를 앞두고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정치적 소신이 있는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결정해야 할 때이다. 특히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지역운동을 실천해 온 민우회와 같은 여성단체에서 많은 후보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성의 지방정치참여의 의미는 능력있는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곳곳에 있는 생활속의 문제들을 그동안의 직접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내감으로써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원 취지를 살리고 그러므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여성이 지방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의 중요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스스로 여성문제의 대변자, 결정자가 되어 그 지방의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수립되고 실현되게 하는 데 있다.



정관개정에 대해 회원들이 의견을 하고 있다.



우수

회원상에

선정된 이명순회원
(사진 위)과 주부풍물패
(단비), (사진은 <단비>
의 팀장 백인숙회원)



바람타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로 서자

조 정 하 「함께가는 여성」 편집위원

115 명(의결권없는 8인은 제외) 참석, 44명 위임으로 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131명:총회구성원 261명의 과반수)를 거뜬히 채우고 지난 1월 29일 '한국여성민우회 제7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간단한 다과와 <어머니노래반>이 돌구는 흥겨움속에 잠시 담소를 즐기던 회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이땅의 평화를 위하여 '먼저 가신 선열들'께 묵념을 올리고 '93년 사업과 결산, 감사보고에 대한 승인, 정관개정,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진 뒤 임원선출, '9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 등으로 총회를 진행하였다.

대중운동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커다란 목표아래 수행되었던 '93년의 사업은 회원조직으로서 자립기반을 다지는 데는 진일보하였지만 전체 한국여성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평가와 감사보고에 이어 정관개정이 있었다.

회장의 임기가 1회 연임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항은 그대로 두되 공동대표의 경우 이후 지도력의 공백기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하였고, 지금까지 지역협의회로 불리던 명칭을 지회로 바꾼 점 등이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이다.

이어 우수회원 시상이 있었는데 사당동 대림아파트의 남해경회원이 '93최다(多)매출상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생협 실무자들이 추천한 우수회원상은 올림픽기자촌아파트의 김미정회원이 받았다. 김미정회원은 품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생협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외상대금을 항상

제때제때 갚으며, 물품을 직접 받고, 공급바구니를 항상 깨끗이 씻어 돌려주어 생협 실무자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어준다고.

우수공동체상은 각 지역별로 2개의 공동체에 수상하였다. 강남-서초 지역은 개포 주공4단지(대표자:김정희)와 대치쌍용(대표자:이신자), 강동-송파 지역은 암사 울산(대표자:윤명화)과 고덕 주공7단지(대표자:유기범), 구로-영등포-양천-안양 지역은 고척 우성(대표자:안경순)과 석수 한신(대표자:이순자), 노원-도봉 지역은 방학 신동아(대표자:이해경)와 중계 현대(대표자:방문정) 그리고 서대문-은평의 북가좌 한양(대표자:강혜영)과 홍은 유원(대표자:이현숙) 공동체가 받았다.

회원활동에서는 주부풍물패 <단비>와 사무직의 이명순(젊은 여성들의 노래모임<노래세상>)회원이 우수회원상을 받았고, 서해안부회장이 공로상에 선정되었다.

유쾌함과 기쁨이 교차하는 와중 백미는 역시 '멋있는 남편'! 모두의 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정원준(김은경 회원의 남편) 우리들의 '멋있는 남편'은 꾸뽀뽀 '속았지요, 뭐. 몇명 더 온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혼자 올 줄 알았으면...' 글썽, 혼자 올 줄 알았으면 안왔다는 이야긴데, 아내의 일을 나의 일처럼 민우회 공개행사에 3회이상 참여하고 「함께가는여성」에 남편이야기를 쓰는 애뜻한 용기의 소유자도 역시 청일점으로서의 용기에는 씩스러운 뒷담화에 망설여지나 보다.

우수회원 시상에 이어 임원선출이 있었다. 이번 '94총회

는 그동안 민우회가 대중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한명숙회장의 임기가 꼭 차 새로이 회장단을 뽑는 임기총회. 이경숙, 이금라, 정강자회원이 공동대표로 선출된 뒤 '94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94년은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주요 방향으로 전체여성운동속에서 민우회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더불어 지역여성운동체로서 자리를 굳건히 잡아가는 내용으로 세부사업이 세워졌다.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조직부는 4개 지회(강남-서초, 구로-영등포-양천-안양, 노원-도봉, 서대문-은평)와 2개 지역모임(강동-송파, 분당)의 활성화와 지역운동체로서의 성장을 위해 그 뒷받침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각 지회마다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민우여성학교'를 실시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열린 공간으로서 '95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나가고 회원들에 대한 지방자치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의 구체적인 행동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지역활동 중심으로 부서활동을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각 지회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나간다는 합의하에 주요 사업계획을 잡았다. 생활협동사업부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생협을 이용하는 회원수를 전체적으로 약 300여명 증모하고(현재 1,609명에서 1,900여명), 공동채이용율을 65%로 끌어올리며 지역운동체로 뿌리를 내리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강남-서초 지회는 회원 실천활동으로 '폐식용유 모으기 사업'을 지역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잡고 우선은 공동체 활성화의 본보기로 생협이용율과 매출액을 올리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구로-영등포-양천-안양 지회는 환경문제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을 지역내에 구성, 의정활동과 연결된 공동체 활동으로 지역운동의 본보기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대단하다.

노원-도봉 지회는 쓰레기문제 대책활동 및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활동에 역점을 두고 지역운동에 참여할 계획이며, 각 구에 조직부를 설치하고 부원을 두어 회원들의 관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끌어올릴 예정이다.

서대문-은평 지회는 친목계, 지역 간담회 등 여러 형태의 모임을 통해 매출액을 높이고 회원들의 친목을 강화,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역운동체로의 정착을 꾀하고자 한다.

강동과 송파, 분당지역은 아직 지회의 규모(회원 200명, 공동체 40개)에 못미쳐 지역모임으로 그 위상을 정리. 강동 지역모임은 회원 유대강화와 확산에 주력하고 송파 지역모임은 생협활동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하였으며 분당지역은 지역소모임을 강화시켜 지역의 특수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1994년 월별 사업계획>

월	사 업 계 획
1	● 제7차 정기총회 ● 「함께가는여성」 발행(매월) ●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폐식용유 수거 및 음식물 퇴비화를 위한 회원활동
2	● 5개지회 '회원 간담회' ● 재정사업-간장, 된장 담그기 ● 「모니터위원회 활동보고집」 발간 ● 사무직 회원 월례회(매월) ● 5개지회 '회원 간담회'
3	● 계간 「사무직여성」(94 봄-통권 16호) 발간 ● 제10기 여성간부교육 ● 3·8여성대회 참가(27일) ● 사무직 신입회원 교육 ● 여성노동상담 지원 변호인단 구성
4	● 「민우여성학교」 개최 ● 평생평등일터 마련을 위한 생활용품 바자회
5	● 재정사업-팔기점 생산 ● 제3기 젊은 남녀를 위한 성·사랑·삶의 배움마당 ● 모니터교육 ● 지방자치제교육
6	● 식품안전성 관련 공청회 ● 사무직여성 모범 실천사례 조사 ● 사무직여성부 특강Ⅰ ● 생산지 일손돕기 ● 주부풍물패 <단비>, 제2회 풍물굿
7	● 계간 「사무직여성」(94 여름호-통권 17호) 발간
8	● 어린이 풍물교실 ●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9	● 평등가족 문화한마당 ● 계간 「사무직여성」(94 가을-통권 18호) 발간 ● 주부 풍물교실 ● 분당지역 「민우여성학교」 개최 ● 사무직 신입회원 교육
10	● 제4기 젊은 남녀를 위한 성·사랑·삶의 배움마당 ● 지방자치제교육 ● 노동조합 간부들과 과제작업 ● 성희롱 문제홍보를 위한 책자 발간
11	● 사무직여성부 특강Ⅱ ● 정회원 및 지역 운영위원 과제작업 ● 주부 상담전화 설치
12	● 계간 「사무직여성」(94 겨울-통권 19호) 발간 ● '94 평생평등일터를 일군 여성들과의 한마당 ● 「여성인권 보고집」 발간 ● 어린이 풍물교실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연말잔치

관심을 갖고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분당지역은 기존 회원들을 중심으로 월례회, 독서모임, 산지견학, 가족동반 산행 등을 통해 지역의 회원규모를 확산시켜 나가고 '95년 지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알뜰히 해 나갈 예정이다.

홍보부는 적절한 과제개발을 통해 민우회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회원들의 과제작업인 각 위원회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가는여성」이 회지로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목표를 잡았다.

올해 새로이 구성된 <홍보기획위원회>는 전체 여성운동의 흐름속에서 민우회의 역할과 사업을 점검하고 또한 민우회의 대외선전을 밀도있게 추진하기 위한 틀, '94년이 유엔에서 제정한 '가족의 해'라는데 착안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모니터위원회는 여성문제 및 환경문제에 역점을 두고 언론매체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활동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회원확보를 위한 공개교육 그리고 활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주부풍물패(단비)와 <어머니노래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위원회는 소모임활동에 비중이 많이 두어졌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지역활동 등 대내외 민우회의 행사와 적극 결합하며 활동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단비>는 6월경 주부풍물굿을 기획하고 있으며 <어머니노래반>은 회원 모두가 작곡 등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갈 생각으로 지금은 악기 1가지 이상씩 배우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환경위원회는 수입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멋있는 남편으로 뽑힌 정원준씨와 부인 김은경 회원(왼쪽) 생활실무자들이 추천한 우수회원 김미정씨. (오른쪽)

우리농산물을 지켜 나가는데 앞장서고 회원 실천활동으로 폐식용유 모으기, 쓰레기감량화운동의 하나로 과일껍질과 유정란 껍질을 모아 산지에 되돌려주는 음식물폐기물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인권위원회는 꾸러진지 얼마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는 위원회의 내부 정착화에 주력하되 전문위원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외홍보사업도 적절한 시기에 해 나갈 생각이다.

해가 갈수록 기반을 다지는 곳이 생활협동사업부, 작년과 마찬가지로 생활협동사업부에서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철저한 산지관리와 합리적인 공급체제로 물품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 산지의 다변화로 계절적인 야채품목의 공급시기를 장기화하고,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계속 고민할 계획이다. 그리고 타생협과 생산지, 회원과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으로 생협운영체계를 계속적으로 보강,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르와이라운드로 나라의 문이 대책없이 열리는 요즈음

중외단상

“마음 든든합니다”

한 명 숙 3~4대 회장, 한국어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민우회 회장직을 맡은 이번 '94 총회 사회를 맡으면서 새롭게 배우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많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우회 사업에 대해 보여준 관심과 참여의 열의를 보며, 민우회 앞날의 발전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한 물러나는 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히 느낀 것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민우회가 전개하고 있는 세가지의 사업이 개성적이고도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리라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확대된 민우회의 규모에

걸맞게 세 분의 공동대표가 선출됨으로써 전문성을 지닌 지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명숙 상임공동대표는 80년대초부터 여성운동에 깊이 참여한 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여성단체인 여성성우회 사무국장직을 비롯하여 민우회 부회장, 노원·도봉 지역 대표를 거쳐 오랜동안 여성운동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도력으로 여성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탁월한 대중성을 지닌 소중한 분입니다.

이금라 공동대표는 민우회 창립회원으로서 민우회 일을 자신의 삶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 헌신적으로 일한 분으로 부회장, 생협위원장직을 역임하면서 특히 민우회의 대중적 기반인 생협을 본래대로 끌어올리는데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현실감각과 일의 추진력이 뛰어나며

흔히 여성들에게 부족한 경영능력을 가진 전문가라는 점에서 돋보입니다.

정강자 공동대표는 1970년대 노동현장에서 한 뼘가 굵은 여성노동운동 전문가입니다. 산업선교회 교육부장과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여성국장,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 민우회의 부회장으로 사무적여성운동분야를 책임있게 맡아왔습니다. 운동의 방향 감각이 확고하여 민우회가 나아갈 진로에 '향도'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전문성을 지닌 여성운동의 개성있는 세 지도력이 민우회의 공동대표가 되고 회원들이 보여주는 주민주의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민우회가 담당해야 할 여성운동의 몫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우리나라 전체여성운동의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94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주요 방향 아래 '회원이 주인인 조직'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새롭게 열릴 지역자치시대를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즉 교육조직부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구체적인 행동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지역활동 중심으로 홍보부는 각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민우회의 대외선전을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며, 생활협동사업부는 철저한 산지관리와 합리적인 공급체제로 물품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무직여성부는 여성고용의 안정과 촉진을 위한 대안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세부사업을 잡았다.

우리 농산물을 지켜나가고 더불어 장기적으로 우리 땅을 살려나가는 지혜는 바로 유기농산물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 삶에 있음을 되새기며 적극 그 밑받침으로 서겠다는 제 생협 실무자들의 다짐이다.

사무직여성부는 여성고용의 안정과 촉진을 위한 대안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사업을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대중사업의 내실화 차원에서 교육사업을 밀도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젊은 남녀를 위한 일, 사랑, 삶의 배움마당' 강좌를 통해 보람있는 일과 삶 그리고 올바른 사랑과 성(性)에 대하여 젊은 직장여성들에게 의미있는 이야기를 해 나가고, 적절한 주제와 토론, 비디오 감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 월례회를 개최하여 사무직회원의 조직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무직조직위원회를 꾸려 회원들과 사업의 유대를 강화하고 소모임은 회원들이 자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그 후속지원 및 확대사업을 통해 현장에 대한 지도력을 구축하고 곧 노동운동내 여성지도력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증권 등에 집중되었던 사업의 영역도 다른 업종으로 넓혀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상담창구를 개설, 여성들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성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그 심각성을 홍보해 나가며 성폭력특별법 시행령 제정작업에 적극 개입, 내용확보에 힘을 쓸 것이다. 또 사무직여성 모범실천사례 등을 발굴하고 시간제, 임시직, 파견노동에 대한 대책마련, 여성들의 직무개발에 대한 연구, 모성보호 비용의 국가부담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세부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돋보인 것은 땀방한 사업계획 외에 한국여성민우회가 회원들의 뜻있는 참여가 함께 할 때 활짝 피어오르는 '회원이 주인인' 조직이라는 점이었다.

정관개정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관심과 열의는 사단법인 추진과정에서 갖추어진 합리적인 재정의 틀과 함께 '94년 새롭게 열릴 지역자치시대를 준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새로운 의욕으로 민우회 활동을 설계하는 회원들의 얼굴 모두가 그저 환하기만 하였다. 이날 회원들이 함께 다진 열의와 지혜는 우리 여성들의 삶을 살찌우고 나아가 살기좋은 동네, 건강한 일터를 일구며 민우회의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지금 우리 민우회는 지역활동의 기초를 서서히 다지고, 사무직여성운동에서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반없이 댕주먹으로 시작했던 터라 힘들어 지치기도 하고 어려운 고전도 뒤따랐던 7년이고, 이는 민우회의 많은 사업들이 각각의 기틀을 닦는데 여념이 없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우회는 전체 여성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여성운동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2,000여 민우회원들이 한국의 여성운동을 이끄는 길잡이가 된 셈이지요.

우리의 몫을 당당히 해내고 서로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도록 서로의 힘을 작으나마 하나로 모아 갑시다.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거라 자신합니다.



이 경 숙

민우회는 지금까지 담은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대표들은 흠어져서 각기 맡은 분야를 담당하다가 중점사업에 몰쳐서 활동함으로써 우리의 역량 이상의 효율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생활협동사업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선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비농산물취급품목을 확대하고 또한 농산물가공을 증대해야 합니다. 딸기잼 외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재정자립을 위해 한층 서로의 고민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아이가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 설레이던 마음처럼 중책을 맡게 되어 효못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것을 감금 수 없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이 금 라

공동대표의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너무나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자면 '무슨 일이든 못해낼 리 없다'는 자신감도 한편으론 느껴집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여성들에게 가정에서의 역할과 함께 사회에서의 몫도 요구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도 놓칠 수 없지요. 지금 민우회에서 펼치고 있는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들은 일터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어디서든 마음놓고 일하고 자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정 강 자

“도예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김 미 동 회원, 도예가



토도랑(土陶廊)은 한국의 대표 도예작가들의 작품과 다양한 생활도예들을 전시, 판매하여 한잔의 차와 함께 우리 도예의 맛을 즐기길 바라는 '열린 도예공간'이라고...

“작품에 손대도 괜찮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있는 전시회. 작가를 물으면 바로 달려와서 “제 작품은 이러합니다” 하고 설명해주고, 가격도 다소 저렴한데다 실용적이라서 구경하다가 몇가지 사들고 올 수 있는 전시회가 있다면, 한번쯤 시간을 내서 가보고 싶어질 것이다.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토 아트 페어’가 바로 그런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는 ‘토 아트 스페이스’ (대표 우병탁)에서 연말선물용품을 사러오는 소비자들을 위해 백화점내 갤러리에서 전통용 생활도예품을 전시, 기획판매한 행사였다. 태두리가 도자기로 장식된 손바닥만한 거울에서부터, 붉은 흙으로 빚은 휴지케이스, 돌덩이 모양의 시계, 도자탁자와 의자, 정교하고 작고 소박한 것에서부터 색깔이 현란하거나 주무르다만 듯 흙맛이 느껴지는 작품 등... 다양한 도예의 세계를 한꺼번에 구경할 수 있었다. 가격도 모양과 디자인에 비해 저렴한 편이었는데, 이것은 각 코너마다 작가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획기적인 유통구조 때문이기도 하였다.

‘토 아트’는 그동안 현대 도예를 대중과 연결시키고, 실용적이면서도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도예문화를 풍성하게 하는데 앞장서 왔다.

처음에는 전시만 하는 화방이었다가 큰 화재로 인해 새 모습으로 단장하면서, 인사동 ‘토도랑(土陶廊)’과 압구정동 ‘토 아트 스페이스’로 자리잡게 되었다. ‘토도랑’ (안국동 로타리에서 인사동 골목으로 들어서는 입구 왼편에 위치)은 도예전문갤러리로서, 다양한 생활도예품들을 전시판매하며, 누구든지 작가들의 잔을 골라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겸하고 있다. ‘토 아트’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에서 올리버 베이커리 방향으로 50미터)는 회화, 조각, 도예 전 분야의 전시회를 열고 있는 공간을 위주로 역시 생활도예품 전시 및 판매, 찾집을 겸하고 있다.

대표인 우병탁씨는 원래는 조소를 전공하였으나 도예에 매료되어 이젠 거의 도예분야의 전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독일 현대 도예전(11월 7일~30일)」은 우병탁씨가 독일에 갔다가 ‘국내 작가들에게 생활용기의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서’ 독일 현대 도예가 20명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을 전시한 것이다. 도예를 모르는 사람도 “도예로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구나”라고 흥미를 가질만큼 다양한 생활용도를 보여주었는데, 그는 요즘을 우리나라 도예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얼마전에도 중국 경덕전의 가마에 다녀와서 중국 도자를 소개할 전시를 예정하고 있고, 몇년전부터 진행중인 「진로 도예 지병전」(진로그룹에서 후원하는 도예전시회)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화랑미술제(우리나라 화랑협회의 대표작가들이 모두 참가하는 전시회)」에서도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2~3년에 한번씩 「토 공모전」을 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드물게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사를 통해

젊은 도예가들에게 좋은 후원이 되고 있다.

올해의 행사로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한국 종합전시장에서 열리는 「94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Seoul Living Design Fair)」에서 도자 소품, 생활 도예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옹기를 만들어 낸 것은 여성의 힘이라고 한다. 인간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여성의 의식이 옹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생활에서 쓰이는 물건들을 도예로 표현하는 작업들이 결코 여성들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커피잔 하나, 밥그릇 하나까지도 대량생산으로 판에 박은 듯 찍혀나온 모양이 아니라 저마다 개성이 담겨 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생활의 여유를 안겨주지 않을까?

어딘가에서 차를 마시며 만남을 가져야 할 때는 '토 도랑'이나 '토 아트'에서 분위기있는 약속을 해 볼 것을 서슴없이 권하고 싶다. 



도자기반의 외출

전 현 주 회원

1월 × 일

눈이라도 금방 뿌릴 것같은 늦은 오전, 나는 전시회 관람을 위해 집을 나섰다. 인사동에 위치한 '토 도랑'에서 회원들을 만나 그곳에서 전시하고 있는 여러 작품들을 구경하였다.

도예를 배운지 얼마 안되는 나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많아 당혹스러웠지만,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욕심도 나고, 질투도 나고...

한편으로는 의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전 조금 아는 것이 있다고 궁금한 것이 많았다. 다른 화방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우리들은 눈치도 없이 선생님을 불러대며 질문을 해댔다. 선생님의 얼굴이 화색(?)이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반짝이는 눈망울로 달심히 메모를 하며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 바쁜 우리들의 얼굴은 빨갛게 홍조마저 띄고 있었다.

2월 × 일

오늘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작품을 초벌한 다음 유약작업을 하는 날이다. 작업으로 들어가 붓을 잡으니 화려했던 이라도 이렇게 망설여지지는 않을 것 같았다. 혹시 다된 그릇에 흠가루라도 뿌리는 게 아닐까 노심초사, 도저히 붓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심기일전, '잔' 마음을 비우고 붓을 움직이니 저절로 그려진다. 조물주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렇게 즐거우셨을까?

다들 점심을 먹는 중 마는 중,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며 힘든 산고(?) 끝에 나온 작품들을 어루만지다 보니 어언 오후 5시, 다들 아쉬워하며 손을 놓았다.

흙은 지름길이 없단다. 생성과정도 그렇지만 제작에 들어가기 전후 어느 한 군데도 소홀함을 용서하지 않는다. 흙작업은 인생살이만큼 어렵지만, 쏟은 정성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과 만남을 마련해주신 민우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추모의 글/故 문익환목사님 거레장에 부쳐

우리 사랑 문익환 목사님

권 미 혁 회원

故 문익환 목사님.

목사님을 추모하는 글을 부탁받은 순간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선뜻 추모의 대열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한편에는 일종의 의무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목사님을 추억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계기를 놓고 많은 개인적인, 그리고 주변적인 일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민주화운동의 큰 어른을 잃었습니다. 어른은 계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하고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어른이 계시니 그 울타리 안에서 생산하고 화해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안계시니 계시 때보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이제 너희 대장님을 잃었으니 어떻게 하냐?" 하시는 천정아버님의 말씀에 '싸야' 하는 찬바람이 가슴을 스칩니다.

우리는 이시대의 가장 치열한 무사를 잃었습니다.

스물네살 되시던 해에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 중실중학교를 중퇴하시고 학병을 거부하였으며, 1976년 58세의 늦은 나이에 암울했던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을 깨뜨리고자 결행한 "3·1 민주구국사건"으로 옥고를 치루신 것을 시작으로 1978년에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폭로한 일로 재수감되었고 1980년에는 광주민중항쟁 와중에 "내란예비음모죄"로 복역, 1985년에는 전두환정권의 군사독재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순회강연 중 "선동죄" 명목으로 3년 옥고를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방북하셨고 곧 구속되었으며 1991년에는 73세의 나이로 강경대열사 장례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시다가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감되시는 등 생애 총 6번이나 투옥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근대사의 주요 고비고비마다 목사님의 민주화와 민주통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었고 이는 선생님의 무욕을 중심으로 역사를 써도 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생애 대해 끓어오르는 환희와 기쁨을 느낄 줄 아는 한 시인을 잃었습니다. 항상 투쟁의 대열에 맨앞에 서신 목사님. 그렇다고 당신이 강건하기만 한 분이셨던가요.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저희 결혼식 주례를 서시며 연신 너무 기뻐하시던 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따뜻하시고 웃음을 잃지 않는 로맨티스트요 예술가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다섯권의 시집 그리고 '꿈을 비는 마음'이나 '잠꼬대 야한 잠꼬대' 같은 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매사에 활기차고 정열적인 당신의 생활이 그 자체로 시였습니다.

동문수학한 운동주씨의 시가 너무 좋아 감히 시 쓸 자신이 없었던 목사님. 이제 당신의 시는 운동주의 "서시" 만큼 우리에게 사랑받으며 읽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는 한 순수한 청년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이 민주화운동에 뛰어들 것이 40대. 남들은 이제 인생의 남은 부분을 위해 정리해 들어갈 때인 불혹의 나이에 목사님은 새롭게 자신이 깨달은 민족의 사명앞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장준하선생께서 박정희정권에 의해 살해되시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당신의 뒤를 잇겠소" 했다는 목사님의 약속은 충분히 이행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활상의 이유로 아직 젊은 나이에 의기소침해 있는 많은 법인들에게 목사님은 영원히 늙지 않는 청년이요, 한 개인이 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만큼의 무게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사도를 잃었습니다.

1995년을 한반도 통일의 해로 잡고 계시던 목사님. 민족에 대한 사랑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서슴없이 실천하셨던 그래서 한민족이 하나될 경우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셨던 목사님은 끝내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남은 우리의 짐을 더 크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훌륭한 한 가장을 잃었습니다.

박용길장로님과 문목사님의 금슬은 세간에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됩니다.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던 22일, 한신대 교정에서부터 노제가 거행된 내학로까지 모인 2~3만명의 인파들, 목사님 가신 길을 묵묵히 애도하던 많은 시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생애 다시 이런 장례



1938년 운동주 등과 함께 용정북부교회에서 영동성당앞에서 연설하시는 모습



식을 볼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에 더욱 목사님이 그리워졌습니다.

마침 같은 날 군사독재의 하수인으로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아 낮은 외국에 몸부처 겨우 살던 정일권(전 국무총리)씨가 '소위' 국립묘지에 묻히고, 문목사님 장례식에 추모사절로 참여하겠다는 이북의 동포들은 가로막는 김영삼정부를 보며 문민정부라 외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실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레장'이라는 이름에 맞게 온 국민이 문목사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또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을 많은 후배, 자손들이 있으며 또 역사가 목사님을 추강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위안을 받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은 목사님의 행로를 기록으로 남길 '자서전'이 없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목사님의 '자서전'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과 근대사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목사님이 안계신 그 자리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하늘나라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따듯이 지켜봐 주십시오.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우리가 늦봄이 될게요

— 늦봄 故 문익환목사님 거례장에 부쳐

김영환 시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이사

목사님!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삶의 끝, 죽음의 언덕위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토록 보고 싶던 금강산 두만강 다 보이시나요?
말뼉리던 북만주 벌판, 울두레 우물가 밤새 소리 그대로인가요?
푸른 숲길, 맑은 시냇가 거닐고 계신가요?
울릉주, 장군하, 천태암, 조양대, 김병곤형 모두 나와 반겨 주셨나요?
6월 한강에 연세대 이한열 장제식에서 애절하게 부르시던
일사님들 모두 함께 계시고요?
이름없이 해방의 길 쓰러져간 독립군들, 의병들, 농민군들,
광주 영랑들 모두 만나 보셨나요.

목사님 저금 휘이휘이 어딜 가고 계신가요?
'가슴이 아파, 가슴이 답답해' 하시더니
이제는 편안하신가요?
'통일은 다 됐어, 통일 맛을 준비를 해야 해.' 맘장 설치시켜
승가한 나날들 하루같이 일구시던 목사님
죽음의 문 활짝 열고 삶과 죽음 통일하셨나요?
꽃뭉치 서서 훌쩍 죽음의 출렁다리 건너가신 목사님
참으로 담담하게 휴를 타고 가신 건가요?
당신은 알고 계셨지요?
다가오는 죽음, 얼마 남지 않은 이승에서의 삶.
그때 부라부라 통일맛이 준비하신 게지요?
종로3가 사무실 개소의 마지막으로 열어놓고 가신 게지요?
나머지 몸여 남은 기(氣) 김남주 시인에 날여주시고
지금 그곳에서도 쿨지 않고 남주형 살리려고 생명의 전(傳) 놓고 계시지요?
'남주가 살아날 것 같애, 남주가 살아날 것 같애'
목련꽃처럼 부시게 웃으시더니 먼저 가셨군요
통일맛이 40대 실무자 구하셨지요?
'북쪽이 가진 자주성과 남쪽의 민주성을 결합하면
통일조국 멋진 나라, 멋들어진 민중의 나라가 될거야.' 하시더니
모세처럼 통일의 그날 저 앞에 있는데 못보고 가셨군요.
아니 그곳에서 보시려고 놀아 올라 터잡고 계시지요?
.....

구름 한점 없는 차가운 밤이었어요
목사님 떠나신 그날 밤
'민족의 벨' 하나가 떨어졌다고
택시기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뭇가지조차 험벗어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는 요 며칠동안
당신없는 밤과 낮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당신없는 도시에 햇살이 나리고
우리를 꾸역꾸역 살아가지만
망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가슴속에 화를 불 잠재우려
쓴 소주도 떨어 넣어 보았지만
가슴을 찡는 이 죄로움 가늠 수가 없더군요
.....
당신이 떠나고 나니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니
나의 꿈 나의 희망 우리들의 행복이
모두 당신을 두고 서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니
우리는 당신이 누워 죽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비로소 알았습니다.
당신을 우리는 북한산 인수봉으로만 알았습니다.
눈보라 비바람에 언제나 도시 한편에 웃고 서있는.
아니 그저 피도피도 마르지 않는 천지(天地)인줄만 알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니
남과 북이 노인과 아이가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왜 모두가 조국의 흙이 되고
왜 모두가 조국의 들꽃이 되고
왜 모두가 조국의 꽃씨가 되어
천라산으로 백두산으로 묘향산으로 다니는지 천둥처럼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차와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보십시오, 한반도에 흐르는 통곡소리를
남과 북에 함께 나누기는 만강(萬江)과 한송소리를
어른 나뭇가지 험벗은 풀잎조차 길가에서 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리산 피앗골에서 언 땅을 들고
얼음바닥이 솟아 올랐답니다.
그 대밭에서 나뭇잎 싹하게 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오대산 하진부리 밭아다리 약수터 가는 길
고구려 장수 닮은 나무가 새벽녘부터 감옥 더불고 싹하게 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 묘향산 단군굴에 이끼들이 파랗게
얼어나 앉아 있다 합니다.
이 나라의 강물들도 아침결부터 바다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우리 길 떠나 거례의 큰 길 가시는 날
단숨에 죽음을 넘고, 단숨에 분단을 넘고,
단숨에 분열을 넘고, 단숨에 노쇠한 심장 벗어버리고,
통일 기관차 갈아타기 위해 멀리 떠나시는 날

남한 강가 모란 공원 양지 바른 곳
웃가지 육신을 흙속에 묻고
휘휘 날아다니는 그 계획으로 벌써 마음 바빠지셨지요?
별써 목사님 계신 그 동안 웃음꽃 피셨지요?
밤마다 민주영령들 모여 도란도란 우리 얘기 하실거죠
소리없이 추곡시험 응원하듯 민주주의 응원하실거죠?
통일 열여 제껴라, 통일 열여 제껴라 박수 치실거죠?
분열하는 우리, 돌아오는 우리
두손 끌어다 맞잡게 하실거죠?
소외된 이웃들 따뜻하게 감싸 안으려고
피지 않는 손길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죠?
이제는 과로도 심장마비도 교통재중도 없는 세상에 가셨으니
얼마나 바빠지실까 목사님, 우리 문익환 목사님

우리가 이제 늦봄 될게요.
목사님께서 울릉주 시인 장준하 선생님 길 가셨듯이
목사님 우리에게 울릉주여요.
목사님 우리에게 장군하여요.
목사님 열여 제껴 그 길 내쳐 우리가 가겠어요.
민주주의 완성이 길, 통일조국의 길
더욱 뜨겁고 넓혀 가겠어요.
봄과 여름 사이 우리도 지지않는
꽃이 되겠어요 풀이 되겠어요.
목사님처럼 조국의 흙이 되고
그러하여 역사(歷史)가 될게요.
목사님 남겨주신 안구(眼球) 칠원만 거례가 박고
초롱초롱 살아가겠어요.
.....

워드프로세서(WordProcessor) 초보운전

손 은 미 회원, 한국정보서비스 교육실장

워드프로세서란 말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단어처리기'가 되는데 이 용어로는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하고, 화면을 통하여 작업하며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위에 인쇄할 수 있다는 모든 기능을 전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말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WordProcessor(WP)'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그대로 이용된다. 이러한 WP는 각기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대부분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법(특히 Key 사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삼보컴퓨터의 보석글, 금성컴퓨터의 하나WP, 한컴시스템의 사임당 등 여러 WP가 이용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한글 2.0' (아래 한글 2.0)을 이용한 문서편집과 그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글의 배를 띄우려면?

먼저 '한글 2.0'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려면 1번 디스크를 넣고 A:\로 만든 후 A:\install (Return Key)를 친다. 설치환경을 입력하고 return key를 치면 설치가 진행되며, 메시지에 따라 디스켓을 바꾼 후 return key만 치면 된다.

일반용 프로그램인 경우는 HWP20CM, 전문가용인 경우는 HWP2.0이라는 디렉토리로 하드디스크에 설치되며, 다음과 같이 실행시킨다.

C:\CD HWP20CM(or CD HWP20) (return key)

C:\HWP20CM\HWP (return key)

한글의 초기화면

화면의 가장 윗줄에 메뉴와 눈금자가 표시되며, 문자가 입력될 위치는 나타내는 커서가 편집화면 상단에서 깜박이고 있다. 또한 화면의 맨 마지막 행을 상황표 시행이라 하는데 이곳에는 현재 선택된 자간, 커서위치(페이지, 행, 열), 입력모드(삽입/수정), 문서제목, 시간 등이 표시된다. 문서의 제목은 새글인 경우에는 UNTITLED.HWP라 표시되고 저장할 시키거나 불러낸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일명이 표시된다.

입력모드의 삽입이란 글자의 입력이 삽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정이란 글자가 입력될 때 이미 쓰여져 있는 글자를 지우면서 입력되는(overwrite)형태를 말하며 이 입력모드는 키보드의 [ins]를 눌러주면 서로의 상태가 변경된다.

한글의 메뉴선택

화면 맨 위에 표시된 메뉴를 선택하려면 (F10)을 눌러 원

하는 메뉴로 이동, 선택하거나 (Esc)로 선택한 메뉴를 취소시킬 수도 있다. 한글의 사용에 좀 더 익숙해지면 (F10)으로 메뉴를 선택하는 대신 단축키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내용을 입력하다가도 한번의 키 조작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너무 단축키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메뉴의 선택에 의해 내용을 친숙히 한 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명령부터 차근차근 단축키를 사용, 외우도록 한다. 메뉴에 표시된 각 단축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문자 — (Ctrl)과 함께 지정문자를 누른다.

@지정문자 — (Alt)와 함께 지정문자를 누른다.

~지정문자 — (Shift)와 함께 지정문자를 누른다.

기본적인 입력/수정을 위한 키 사용방법

한글/영문 입력 — (F2)로 자판을 바꾸며 입력한다.

줄바꿈 — 오른쪽 끝까지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다음줄로 가려면 (Enter)를 친다.

삭제 — 글자의 삭제는 (Del) 또는 (BackSpace)를 이용하여 지우고, 한 줄을 모두 삭제하려면 그 줄에 커서를 두고 (Ctrl+Y)를 누른다.

커서이동 — →, ←, ↑, ↓, (PgUp), (PgDn) 등의 기본적인 이동키 외에 아래와 같은 정도의 커서이동키를 사용하면 작성이 훨씬 빨라진다.

(Home)/(End) : 현재 줄에서 1열로/마지막 열로 이동한다.

(Ctrl+Home)/(Ctrl+End) : 현재 화면에서 첫번째 행/마지막 행으로 이동한다.

(Ctrl+PgUp)/(Ctrl+PgDn) : 문서의 가장 처음/가장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한글을 이용한 문서작성의 기본철자

첫째 서류철 메뉴에서 새글이나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먼저 입력할 문서를 준비한다. 특히 새글인 상태에서 문서를 새로이 입력할 경우에는 서류철의 인쇄메뉴 중 용지설정을 선택하여 작성할 용지의 규격과 여러 형태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용지종류 및 왼쪽/오른쪽/위/아래/머리말/꼬리말 등을 위한 여백주기)

둘째 문서의 내용을 입력하고(각종 문자, 선, 도표 등) 강조할 내용의 문자크기나 모양을 변경시킨다. 또한 각 페이지마다 편집상태가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절하거나 줄간격 등을 조절한 후 화면인쇄로 상태를 점검한다.

셋째 작성된 내용을 저장시키고 프린트로 종이에 인쇄한

다.

단 작성된 내용의 저장은 작성이 종료된 상태가 아닐지라도 중간중간에 수시로 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소개와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다음호 이후로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다양한 문자의 표현, 문자열 바꾸기, 도표작성, 그림 및 수식편집 등) 하나씩 소개하도록 한다.

컴퓨터 바이러스란?

컴퓨터 바이러스란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에 몰래 들어가 시스템이나 사용자의 프로그램에 자신을 복제하고 그 컴퓨터 시스템과 화일들을 파괴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증상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하여 컴퓨터에서의 '바이러스'라 부른다. 즉 생물학적 바이러스가 단백질 분자와 그 안의 핵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자기 자신을 복제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바이러스도 유전인자(프로그램 코드)를 갖고 있으면서 컴퓨터 시스템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자신을 복제하도록 작성된 프로그램인 것이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 프로그램을 치유하는 것 역시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백신 프로그램이라 하며, V3라는 백신이 공개용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더 힘찬 발걸음을 위해

— 한국여성단체연합 제8차 총회를 마치면서

강 해 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직부장

해마다 총회가 다가올 때면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꼭 한두가지의 실수가 빠지지 않던 경험을 되새겨 총회 며칠 전부터 혹시라도 빠트린 것이 있을세라 목록을 적어 쟁기고, 회원단체에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확인하길 여러차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94년도 중점사업인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안, 정관 개정안,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새로운



통일운동체에 대한 논의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했었다.

'94년의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 제2기 지방자치선거를 여성운동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지방자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단체에서 지역의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출마를 지원할 수 있는지가 초점이었다. 여성유권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와 함께 여성이 직접 출마하여 의원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여성단

체와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할 경우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최대한 여성후보를 줄여주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에 동의하고 실행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또한 개최한지 10주년이 되는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는 조금 더 책임지고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라 본행사 이외에 각 단체별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부대행사를 준비하여 캠프를 설치하자는 제안 등이 채택되었다. 전국 각 지역의 회원들이 모여 그날 하루만은 서로 어우러지고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올해의 한국여성대회를 기대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한명숙 대표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제8차 정기총회가 속개되었다. 새로 여연에 가입하여 같이 활동을 하게 된 전북여성운동연합과 참관으로 활동을 하게 된 순천우리여성회가 소개되어 힘찬 박수를 받았다.

전년도 사업보고와 승인, 감사, 재정보고 등이 있는 후에 드디어 임원선출의 시간이 되었다. 예년에는 거수로 투표하던 것을 올해는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선거위원도 선

출하고 투표후 한명숙, 이영순, 이미경님 등 세분이 여연의 공동대표로 뽑혔다. 처음 실시되는 비밀투표로 모두가 약간씩은 흥분이 되었고, 결과가 발표되자 큰 박수로 환영하였다. 또한 한해동안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도 선출, 인사가 있었다.

한해의 살림살이에 관한 예산안 승인이 있는 후 기타 안전과 광고로 폐회하였는데 예년의 총회에 비해 거의 세배이상의 시간이 걸려 꼼꼼이 토론했고 결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총회를 맞이하면서 각 단체별로 토론을 하고 안전에 대해 준비를 하지만, 올해의 총회는 그 언제보다 토론할 안전과 결의할 안전이 많다보니 1박2일로 준비하면서도 예년과 다른 방식이라 걱정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한해동안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실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토론에 따른 결의를 하면서 올해의 사업이 힘차게 전개되리라는 뿌듯함이 있는 것은 혼자만의 착각일까? 뒷정리가 끝난 뒤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해마다 총회는 1박2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한 목소리, 역시 힘은 들어도 하나하나 토론하고 같이 가고자 할 때, 여성운동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다는 상식적인 진리를 새삼 확인한 자리였다.

우리 단비들에게 '실컷' 기대해도 좋은 94년이에요

유수용 회원, 풍물패 〈단비〉

작년 영화 '서편제'의 열기에 이어 올해 '국악의 해'로 선포된 것은 풍물 등 우리 전통 국악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구로·영등포·양천·안양 지회 주최, 주부풍물패 〈단비〉의 지도로 시작한 '어린이 풍물교실'은 양천구 신정동의 새아름 피아노학원에서 20여명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1월 11일 시작하여 15일 막을 내렸다.

끝내고 수업금으로 장구 하나라도 장만하는 실적을 남기려고 운반비를 아끼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역시 수지타산엔 승산이 없고,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것 풍물에 대한 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다는 훌륭한 기쁨을 주었다.

모두의 열의있는 참여는 새해 첫달부터 좋은 결실로 한해를 여는 뿌듯함이기도 하였다.

짧은 시간에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열과 성을 다한 교육담당 문화원회원의 지도와 보조로 뛰는 단비들은 하나라도 잘 가르쳐 주고자 이리뛰고 저리뛰며 바로잡아 주는 등 분주히 지도하였다.

처음엔 세잡는 법도 어색하고 힘주어 두드려도 제대로 안되고 소리가 안맞아 재미없어 하던 어린이들 역시 민족적(?)되는 속일 수 없는 듯 곧 장단에 마음이 합쳐지고 어깨가 들쭉들쭉 조금씩 덜 힘들어하며 흥이 가미되어 재밌을 발하는 풍물의 맛에 빠져드는 듯 첫날 하루 2시간의 수업동안 쉬지 않고 두드렸음에도 팔이 아프다고 쉬는 어린이가 하나도 없었다.

다음날에 시골길 계획이라며 수업중 첫날만 치고 가며 아쉬워하던 여자 어린이의 뒷모습과, 딱딱 맞는 장구소리, 북소리에 흥겨워 쳐대던 임해선회원의 아들 형제, 아직 어려 양팔이 장구 양옆에 만족하게 닿지 않아 힘들어하면서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던 1학년 여자어린이, 개구장이 짓을 제일하면서도 장단은 안틀리고 좋아하던 이성미회원 아들, 또한 장구는 양팔 모두 아프지만 북은 한쪽 팔만 아프다고 북만 치던 1학년 남자어린이.

지금은 어디서든 북이 나오면 나도 할 줄 안다고 뻔뻔하며 자랑하리라 생각된다.

이번 기회엔 첫날 몸풀이 탈춤기초로 시작하여 우리 단비들이 몇달은 공부해야 하는 여러가지를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했던 기간이었다.

기술적인 면은 기간이 짧기에 어쩔수 없지만 그 어린이들이 어디서든 사물을 대하면 생소해 하지 않고 반갑게 대하리라 본다.

유럽여행중 우리 탈모습에 감동하여 우리 것에 대한 물신



올 6월 발표할 예정으로 '주부풍물굿'을 기획하고 있는 단비들, 일주일에 3일 그리고 한달중 둘째주는 매일같이 연습하는 집중훈련에도, 민우회 회원들이 원한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장단을 두드릴 생각이라고.

한 정과 애착으로 풍물과 탈춤에 매료되었다는 문희순회원의 말 같이, 우리속에 잠재된 민족적인 근직 한 것은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꿈틀거리고 풍물과 접하면서 저절로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춤과 장단이 되는 듯하다.

'어린이 풍물교실'을 〈단비〉의 일원으로 가르치며, 나 역시 1년도 안된 신참으로 함께 배우면서 보람되게 보낸 기간이었다.

장구, 북, 병과리의 혼합된 굉장히 큰소리가 4층 건물이 떠나갈 듯 들쭉거렸는데도 싫은 소리 않고 참아준 주변 사람들의 인내와 이해에 감사드리며, 구로·영등포·양천·안양 지역회원들이 정성으로 준비해주었던 간식은 별미였고 그리고 깊이 감사한다.

주부로서 이런 풍물과 접할 용기와 시간이 많지 않은데도 단비들 하나하나의 개성과 성실한 연습의 결과로 아직도 많이 미숙하지만 알차게 실력이 쌓여지고 있다.

올해는 무언가 풍물패 〈단비〉에 기대해도 좋을 장이 마련되리라 본다.

민우회 회원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협조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의 권익과 입지를 위해 뛰는 민우회 회원 화이팅!
적은 숫자로 일본 대사관 앞에 '정신대 수요시위' 때도 큰 효과를 발휘한 풍물패 〈단비〉 화이팅!



구로·영등포·양천·안양 지회 주최, 새아름 피아노학원에서 열린 '어린이 풍물교실', 아이들의 어깨가 저절로 들쭉였다.

나는 지난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동안 한 국여성민우회에서 개최한 '동학농민전쟁의 현장을 찾아서'라는 역사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가게 된 동기는 올해가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의 해인데 난 동학혁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여행에 보내주셨다.

모두 처음 만나는 아줌마, 아저씨, 아이들이고 나도 혼자뿐이지만 나보다 어린아이가 혼자 가는 걸 보니 여행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난 책에서만 보고, 말로만 들던 석탑이나 절들을 직접 본다고 하니 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했다.

'비록사지 석탑'은 첫번째 도착지였다. 석탑은 생각과 달리 부서져 있어 9층이었는데 5층밖에 되지 않았다. 난 부서진 문화재가 참 안타까웠다. 그리고 옆의 비록사는 절은 부서지고 부싯돌만 남아 있었다. 1400년 전에는 석탑이 아니라 목탑이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강화의 고인돌만 배우던 나는 고창의 고인돌도 알게 되었다. 붉은 흙의 평야에 있는 고인돌은 뒷돌 무게만 해도 8톤이고 1,500명이 들 수 있는 무게라고 한다. 고인돌을 보려면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고창 매산자락에 가면 된다.

'선운사'는 1460년 전에 통일신라때 '금단선사'가 산적들에게 소금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그자리에 세웠다고 한다. 이곳에 있는 금동좌상보살상은 일본에게 도난되었다가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선운사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길이 5미터의 금단선사가 조각한 '마애불상'이다. 이 불상에는 배꼽에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금단선사가 좋은 나라를 세우는 비결을 적은 책을 넣어두었는데 '손화중'이라는 동학농민군의 장수가 이 책을 꺼냈기 때문에 생긴 구멍이란단다. 다른 인상깊은 것은 구부러진 나무로만 지은 건축물의 모양이 재미있었다.

다음날 93년 12월 28일, 날씨가 포근하고 맑아서 난 서울에서와는 달리 맑은 공기때문에 피곤한 몸이지만 6시에 일어났다. 오늘은 어떤 곳을 갈지 기대감이 앞섰다.

내가 피곤한 것은 여행때문이기도 하지만, 2학년들이 시끄럽게 놀아 잠을 못자서 피곤하다. 도솔암에 올라가 해 뜨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해가 솟아올라오는 하듯이 큰 산뒤에 숨었다가 나오는 것 같았다. 내려가는 길에서 '진흥굴'에 가보았다. 진흥왕, 왕비, 도솔공주가 있던 곳이라고 한다. 주지스님께서 '사천왕'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자기가 서있는 동서남북에서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하셨다.

서울로 올라가면서 이곳저곳을 들렀다. 첫번째로 '황토현'에 갔다. 이곳의 박물관에서는 참혹한 모습의 농민들 그림, 무기, 사진 등이 있었다. '말목장터'도 보았는데 그곳의 강나무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부안의 백산에서는 '서면 백산 앞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변산반도의 겨울바다에 갔었다. 나는 예쁜 조개껍질과 돌맹이에 추억을 담아서 다시 차에 탔다.

마지막으로 '내소사'에 갔다. 작고 예쁜 내소사에서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났었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창살마다 국화 연꽃이 새겨져 있었다.

아직 동학농민전쟁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농촌을 지킨 우리 조상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학혁명을 기념하여 농민들의 최초의 승전지인 황토현에 세워진 탑이라고.

역사기행/동학농민전쟁의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작고 예쁜 '내소사'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니...

최 정 임 우이국고 4년, 김광심회원의 딸



동학혁명 당시 전통준장군이 잠시 살았다는 집앞에서

하얀 눈빛으로, 겨울과 새해이야기...

강남 — 서초 지회

1 월에는 우리 지역회원들끼리의 모임은 없었고 29일 제 7차 총회에 참석한 느낌을 회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총회에 참석했는데 '내가 가입한 단체가 이렇게 크고 굳건한 모임이었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91년 처음 민우회원이 되었을 때의 연약해(?) 보이던 단체가 평범한 주부들, 일에 쫓기는 직장여성들의 힘이 모아져서 특별한 누구의 후원도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뻐합니다.

바람직한 '무엇'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용기있게 참여하고, 조금 희생하는 생활이 조금씩 습관화되는 동안 민우회가 무럭무럭 자라난 것 같습니다.

총회의 긴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주신 실무진,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는 회원들 때문에 시종 유쾌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보람있게, 신나게 자신의 삶을 가꾸는 민우회원들의 얼굴이 밝고 아름답게 떠오릅니다.

강남-서초 지역 회원님들!

올해에도 점점 커가는 민우회 못지않게 우리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화이팅!

고 혜 경 지역 운영위원

서대문 — 은평 지회

보 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우리 지역의 94년 사업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의 증모계획으로 생협활동 회원을 50명 이상 증가하고 정회원 5명 이상 증모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운동체로서 정착화를 위해 월례회 7회(2, 3, 4, 5, 6, 7, 9, 10월), 친목회, 지역간담회 그리고 연말잔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우회 회원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95년의 지방의회 선거시 유권자로서의 자질을 높여내기 위해 지방자치제 교육 1~2회를 할 예정이고 과제작업은 1회가량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기타 교육사업으로 민우여성학교, 환경문제교육, 명예교사교안설명회, 문화강좌로는 도자기반, 부모역할훈련, 매이크업, 손침, 독서지도, 글쓰기지도, 주부의 건강문제 등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식용유를 모아 비누만들기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자립을 위해 밀반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계절에 따른 새로운 품목과 기존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품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 순 금 지역 운영위원

분당 지역모임

생 후 4개월된 분당지역에서는 1월에 두차례의 전체모임 겸 독서모임을 가졌습니다. 15일 김민선회원 집에 모여 '주부 그 학업과 트임'을 읽은 생각을 서로 나누었고, 4월 예정인 '민우여성학교'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른 지역에서 분당으로 이사온지 얼마 안되어 분당지역의 현황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지역신문인 「분당뉴스」의 기사를 불러서 문제점을 들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별해 보기 위해 25일 최진선회원 집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아파서 못오는 바람에 대신 독서모임의 내실화

를 위해 다른 책과 내용을 의논하고, 기자와의 모임은 2월 15일로 미룬 채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분당뉴스」에 민우회 소식이 나간 것을 계기로 주부들의 문의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민우회 식구가 되신 분도 있었지만 5명정도 소모임을 꾸려야 한다는 조건을 이야기하자 많은 주부들이 다시는 연락을 해오지 않아 회원증모가 첫째 목표인 우리로서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막내둥이로 태어난 우리 지역회원들 심정은 갈길은 먼데 걸음은 빨리 떼어지지 않고, 다른 지역 소식을 접하면 부러운 마음에 숨만 가빠집니다.

바라건대, 일찍 출발한 다른 형님네들! '94년엔 막내둥이를 애정어린 눈길로 봐주시고 격려와 채찍,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미 분당 지회준비위원

故 김남주 시인과 문익환목사님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노원 — 도봉 지회

그 동안 우리 지역의 대표로 활동하며 시며 모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이경숙회원이 이번 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노원·도봉 지역회원들은 그 섭섭함과 허전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늘 분명하고 신속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칼같은 분임을 모르는 회원 아마 없으리라 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감히 불참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보니 지역에 남아 있는 우리들은 힘을 모아 활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년여동안 터닥으며 밤낮없이 수고하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운영위원으로서 매월 참석하시는 것을 당부드리며 허전함을 달래봅니다.

'94년 활동계획으로는 첫째 지역협의회 내실화작업으로 기존 조직관리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노원, 도봉에 조직부장을 두어 책임지도록 하고 소개교육, 공동체간담회(상반기), 공동체대표자 간담회(하반기), 회원 야유회 등을 계획하고 있고 둘째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환경모임> <비디오모임> <여성학모임>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등 과제별 소모임활동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사업의 전문화로 어린이를 위한 방학특강과 분기별(3, 6, 9월)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상·하반기에 자녀교육, 여성학, 지방자치제를 주제로 하여 3회에 걸쳐 사회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활동의 방향을 가능하면 하나로 모아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을 중심으로 지자체 교육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방청 보고서」 발간, 정기의회 방청, 구의원과의 간담회, 일회용품 사용금지조례 제정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내의 부녀회와 연결을 갖고 민우회의 활동 등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주부들의 힘으로는, 몇몇 열성회원들의 의지로는 해나가기 어려운 일들

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껏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지만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도봉지회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서차중(노원·하계)님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신 경 혜 공동대표

구로-영등포-양천-안양 지회

탕 수육으로 한턱을 낸 조옥라회원의 협찬으로 '맛있는' 새해 첫모임을 25일 조성관회원 집에서 가졌습니다.

올해 계획은 연 2회 소모임 간담회와 공동체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월 1회 운영위원회, 계모임을 시간차를 두고 같은 날 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에 '민우여성학교'를 열고 어린이날에는 야유회를 갖고 여름방학에는 겨울방학 때 성황리에 마쳤던 '어린이 풍물교실'을 다시 열 계획입니다.

손치회원도 더 모집하고 '어린이 글쓰기 교실'에서는 고학년의 경우 토론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단정한 머리처럼 말씀도 간결하게 잘 하시는 김소영회원을 향도로 하여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도 꾸릴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지역에서 최우수공동체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갑니다.

조 영 숙 지역 운영위원

1월 공동체별 매출순위입니다

순위	공동체 (봉사자)	매출금액
1	동작4 사당대림 (남혜경)	1,248,600
2	은평12 여성개발원 (김양희)	870,500
3	노원1 중계 현대 (방문정)	803,800
4	송파10 올림픽 기자촌 (이순자)	757,400
5	도봉11 방학동 신동아 (장효선)	730,200
6	관악1 낙성대 교수A (윤옥주)	692,950
7	안양2 석수 한신 (이순자)	675,100
8	서초17 방배입광 (서진주)	625,350
9	분당2 아람마을 건영 (박영희)	624,500
10	마포11 성산시영 (장연희)	617,700
11	강남23 개포주공4단지 (김인숙)	617,600
12	관악6 봉천 장미원 (한지희)	590,800
13	서초14 잠원대림 (김희숙)	581,650
14	서대문21 연희 대림 (신나미)	578,350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

1월 31일 현재, 생협에 참여하는 회원은 1,625명이고 출자금은 56,269,180원입니다

새품목입니다

- 조선간장 (2,700원/0.9리터)
홍성 박경숙님께서 만드신 재래식 간장입니다.
- 조선된장 (6,000원/1되병)
재래식 된장입니다. 전의신협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 오곡세트 (4,500원)
백미참쌀, 차조, 수수, 서리태, 팥의 비율이 딱 맞아서 맛있는 오곡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 딸기 (8,500원/1.2kg)
해마다 맛있는 딸기를 생산해 주시는 고령 광혜석님께서 키우셨습니다.
- 메주 (15,000원/소두만발, 4장)
작년에 생협에서 담근 된장이 바로 이 메주로 만든 것입니다. 무안 신협에서 공급하십니다.

알려드립니다

- 잡곡류는 산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 공급가도 수시로 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고체비누의 포장에 새 기계의 도입으로 1장씩 낱장 포장됩니다. 공급단위와 가격은 변동없으니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4장/1,000원)
- 우리 생협에 쌀과 참쌀을 공급하시는 홍성풀무생협의 사정상 쌀 포장지는 '일반미 8kg'만 쓰고 있습니다. 무농약쌀, 현미, 오분도미, 현미참쌀 4kg가 모두 같은 포장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농약쌀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쓰고 현미참쌀은 반정도 담기게 됩니다.
- 현재 공급되는 사과주스는 사과를 갈아서 거르지 않고 저온살균만 한 것이라 아주 탁하게 보이지만, 섬유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영양면으로는 더 좋은 것입니다.

정성껏 모으신 과일깍질, 유정란깍질은 생협 공급차를 통해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운반의 효율성을 위해 쏟아지지 않게 잘 묶어 주십시오.
(‘알림마당’ 참조)

품 목	단 위	가 격	생 산 지
무농약백미	8kg	19,300	홍성풀무생협
일반미	8kg	13,500	" (저농약)
현미	8kg	18,300	"
오분도미	8kg	18,800	"
현미참쌀	4kg	15,000	"
백미참쌀	4kg	13,000	"
보리	2kg	2,800	과산 잡곡은 산지가격에 따라 조정됩니다.
검정콩	1kg	5,200	"
서리태	1kg	4,700	"
원콩	1kg	2,400	"
참깨	1kg	16,000	"
녹두	1kg	5,500	"
수수	1kg	2,800	"
팥	1kg	4,000	"
기장조	1kg	2,900	"
차조	1kg	4,400	"
엿기름	1kg	2,500	"
오곡세트	1.3kg	4,500	"
유정란 (30알)	30알	3,900	홍성, 햇볕을 받으며 온동한 닭이 발효사료를 먹으며 낳은 달걀
유정란 (10알)	10알	1,300	"
두부 (소래)	1모	1,000	"
콩나물	350g	600	홍성, 국산콩 사용
도라지	300g	1,300	"
통도라지	300g	1,300	"
도토리묵	330g	1,000	더불어 사는 마을
청포묵	330g	1,000	"
조미간장	900ml	5,800	한국미연
홍성된장	1kg	5,000	바른식품
조선된장	2kg	6,000	전희신협
조선간장	0.9l	2,700	"
고추장	1kg	7,000	생협
청국장	300g	1,800	홍성
해물다시다	150g	1,900	더불어 사는 마을
발조청	1kg	8,000	경주
현미식초	900ml	1,500	영도식품
감식초	500ml	4,700	해남 모듬살이 농장
볶음들깨가루	300g	2,500	보은
도토리가루	500g	5,500	"
참깨가루	1kg	3,500	생협
고구마전분	1kg	3,000	삼원식품
굵은소금	3kg	1,500	" (일지도 청정해역의 자연염)
복은소금	1kg	1,700	"
죽염 (1회)	500g	5,500	민속죽염, 식용, 양치질용
죽염 (9회)	125g	20,000	" 약용
죽염세트1	1회2.9회1	32,000	"
죽염세트2	1회1.9회1	26,000	"
죽염세트3	1회2	11,000	"
멸치액젓	900ml	2,000	목포
멸치육젓	2kg	3,600	"
황석어젓	2kg	3,800	"
매주	4장	15,000	무안
참기름	340ml	13,500	보은 농민방앗간
들기름	340ml	5,000	"
고추씨기름	320ml	4,700	"
기름세트	3병	24,000	참기름, 들기름, 고추씨기름
볶은깨	150g	2,800	"
고춧가루	600g	11,000	생협
가는고춧가루	600g	11,000	"

마르릉 521-2088~2089 1994년 1월 31일 현재

품 목	단 위	가 격	생 산 지
시래기	200g	1,800	통성
무알갱이	100g	1,400	
가치나물	100g	2,000	
애호박고지	100g	2,000	
취나물	100g	2,000	
고춧잎말림	100g	2,000	
고사리	100g	3,500	
장유	100g	1,300	
토란대	100g	1,500	
표고	200g	6,000	
양지버섯	300g	23,000	김포
양지새끼		27,000	대추, 갑초
들깨송이부각	100g	2,000	거창 YMCA
감자부각	100g	1,800	"
감부각	100g	1,800	"
참김	1속	4,000	진도, 영산치리 안한것
물김	1속	5,600	
과래김	1속	3,700	"
다시아	500g	2,000	"
미역	200g	2,300	완도
국물말치	300g	3,000	진도 원연제비 배양기에서 그늘을 치고 알람
북음말치	300g	4,000	"
지리말치	300g	4,000	"
북어채	500g	6,000	우성수산
북어포	5마리	5,000	진부랑상사
물북어	6마리	4,000	"
오징어(1속)	20마리	11,000	울릉도
양광굴비	20마리	12,000	양광
호박엿(사탕)	300g	1,000	울릉도
호박엿(당어리)	400g	2,000	울릉도
비릿가루	1kg	6,000	영월(보리, 현미, 찹쌀, 찹쌀떡)
보리차	600g	1,000	보은 농민방앗간
옥수수차	600g	1,000	"
들깨차	200g	1,800	"
감잎차	200g	6,500	장주 한살림
두충차	100g	1,300	함양
현미차	350g	1,500	영월
유자차	1,2kg	9,000	
구기자	600g	15,000	진도
치커리차	200g	10,000	
팔기떡	1,2kg	10,000	민우회
명란젓	500g	9,000	강릉원삼림, 원연조미료만 사용
황란젓	500g	8,500	"
오징어젓	500g	6,500	"
젓갈새끼	3종	24,000	명란젓, 황란젓, 오징어젓
올외갈아비	1kg	8,300	군산 삼학식품
미역튀김조림	100g	1,500	"
다시마튀각	100g	1,500	"
사과즙	800ml	2,000	정암농장
호박익소주	10봉	6,500	"
고구마당면	500g	3,000	삼천식품, 국산고구마전분 사용
수제비	500g	3,000	더불어 사는 마을
도토리칼국수	600g	2,300	"
우리밀칼국수	350g	2,500	보리식품
쌀칼국수	350	1,200	보리식품
김치만두	500g	2,500	더불어 사는 마을(국만두용)
야채만두	500g	2,500	" (원만두용)
우리밀식빵	450g	2,300	"
카스테라	1개	2,000	"
식용세이크	5개	1,500	"
식용세이크	5개	1,500	"
주먹빵	2개	2,000	"
변가래떡	1kg	3,000	생협

품 목	단 위	가 격	생 산 지
떡볶이	800g	2,200	"
호박떡	900g	3,500	
햄	500g	7,000	더불어사는 마을, 팔부제 팔백제 판문
소세지	500g	5,500	"
명태어묵	300g	2,500	"
오징어어묵	300g	2,500	"
아카시아꿀	2kg	32,000	노령
갑화꿀	1kg	16,000	화천
한살과채소스	1,100ml	10,000	한살피
해남과채소스	2l	17,000	해남도농산물농장
홍삼과채소스	2l	18,000	통성
단창유	60ml	13,000	세천 송학대농회
더덕술	1,5l	10,000	통성
진도홍주	400l 2병	10,000	
안동소주	800ml	32,000	
문배술	700ml	26,000	
보도주	1,100ml	5,000	금릉
상지	200g	500	
북갓	200g	500	"
석급치	300g	650	"
당근	1kg	1,500	"
감자	4kg	5,000	통성
야콘	2g	4,200	통성
냉이	400g	1,000	"
귀은호박	1kg	1,000	"
악령고추	400g	1,300	"
쇠물고기	600g	12,000	비탈속간, 한우
쇠갈조림	600g	12,000	"
알치	600g	12,000	"
사태	600g	12,000	"
쇠고기간것	600g	12,000	"
등심	600g	14,000	"
안심불고기	600g	14,000	"
안심스테이크	600g	14,000	"
감비	1kg	16,000	"
감비새끼	3kg	50,000	"
감비새끼	5kg	83,000	"
돼지불고기	600g	3,900	" 몸값돈사에서
돼지장조림	600g	3,900	" 할생제 상감죽진제를 편
몬카스	600g	3,900	" 사료를 먹임
돼지고기간것	600g	3,900	"
돈수육	600g	3,900	"
삼겹살	600g	4,300	"
돼지갈비(LA)	1kg	7,000	"
통닭	1마리	4,400	"
토막닭	1,2kg	4,400	"
삼계	2마리	6,400	"
사과	5kg	9,000	통성
굴	2kg	3,000	
팔기	1,2kg	8,500	고령
갯	140g	6,800	포천농협
갯새끼	140g × 2	13,600	"
복은팔봉	1kg	3,700	영월중앙회
천연샘	500ml	1,800	한국소유지
샘이랑	500ml	4,500	"
새재산물새끼	4병	12,600	천연샘2, 샘이랑2
가루비누	1kg	1,800	협상생산공동체
고세비누	4장	1,000	
화장지	50cm × 10	2,200	부림제지
저학년공책	10권	2,000	아시아문화교육연구회
고학년공책	10권	2,000	"
중고생공책	10권	2,500	"
편지지킴을		3,100	"
양말	10켤레	13,000	생협중앙회
갯잔새끼	2병	25,000	민우회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반대한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7일 세실 레스토랑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여성모임>(아래 여성모임)은 미국의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성모임>은 지난 1월 27일 주한미군에 의한 36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와 아파치헬기 2개 대대 등의 무기 배치에 대한 미국언론의 보도, 1월 28일 이것을 “군사적 도발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지요구”로 대응하는 북한의 반응 등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절대 배격한다고 발표하였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없으며 북한의 군사력에도 변화가 없다는 미국 정보국 국장이나 국방관계자의 일반적 견해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핵사찰 논의가 침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력 증강조치를 취하는 의도를 <여성모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것은 미국이 핵사찰 협상과정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고조시킴으로써 값비싼 첨단무기를 한국에 팔려는 속셈으로 파악된다고 말하였다. 한국의 지형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능도 20%의 명중률 밖에 못미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굳이 이 시점에서 우리 땅에 배치하려는 것은 냉전이후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미국 군수산업의 재3세계를 향한 무기수출의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냉전구조의 지속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호전세력들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미국정부는 미군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한국정부는 민족의 생존권을 위해서 외교적 주체성을 회복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반입을 중단하라.
- 한국국민은 전쟁도발의 가능성이 있는 무기반입을 반대하고 평화군축을 지향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하라.

민우회 회원여러분!

과일껍질과 유정란껍질을 모아 보내주십시오

음식물 찌꺼기는 가정용 생활쓰레기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 퇴비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는 생산지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산성화되어 피폐해져서 피폐해진 우리의 땅을 살리는데 한몫을 하고, 또한 정부의 소각위주의 쓰레기정책에 대한 대안이자 회원들의 실천 활동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민우회에서는 우선 모으기에 조금은 수월한 과일껍질과 유정란껍질만을 모아 생산지(홍성)로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방법은 물기가 흐르지 않도록 가능한 바짝 말려 주십시오. 유정란껍질과 과일껍질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리는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릴 것입니다. 특히 유정란 껍질의 경우 닭의 사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일정량이 모이면 생협물품 공급차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웃에도 권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쓰레기를 줄이고 땅을 살리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우리 민우회 회원들이 앞장서서 일해봅시다.



1월 19일 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한국여성민우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대사관을 뒤흔드는 풍물장단과 우리 회원들의 마음다한 외침은 현해탄 건너 군국주의의 야망을 키우는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평상시에도 항상 외쳐봅시다.

일본정부는 정신대만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죄 배상하라!



<진료안내>

- 내과
- 소아과
- 비디오 내시경검사
- 초음파검사
- 심전도검사
- 임상병리검사
- 방사선검사
- 종합건강진단

우리내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65-2
(백림빌딩 3층 가호)

TEL (02) 569-8750

원 장 이 정 숙
전문의